

## 안식일의 가르침

<sup>14</sup>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sup>15</sup>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sup>16</sup>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sup>17</sup>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sup>18</sup>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sup>19</sup>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sup>20</sup>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sup>21</sup>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sup>22</sup>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눅4:14-22)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인성에 있어서는 신적 진리 자체이셨고, 생명의 본질에 있어서는 신적 선 자체이셨다. 그리고 신적 선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혼이라 불리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여호와로부터 잉태하셨으며, 말씀에서 “여호와”는 모든 생명의 본질인 신적 사랑에서 비롯된 신적 선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본질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셨다. 왜냐하면 신적 선이 주님 안에 있었고, 그 선에서 발현되는 신적 진리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인성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AC.9954:11)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9954번 글 11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or when the Lord was in the world, he was, in respect to the*

눅4:14-22

‘안식일의 가르침’

*human, the Divine truth itself and in respect to the very being of his life, he was the Divine good itself, which with man is called the soul from the father; for he was conceived from Jehovah, and in the Word “Jehovah” denotes the Divine good of the Divine love, which is the being of the life of all. From this it is that at the Lord alone was “the Anointed of Jehovah” in very essence and in very performance, because the Divine good was in him; and the Divine truth proceeding from this good was in his human while he was in the world (see the places cited in n. 9194, 9315).*

이는 출애굽기 28장 41절,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에 관한 주석 중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서 40일간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 뒷부분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는 말씀의 내적 의미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님은 광야에서 돌아오셨을 때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돌아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에서 이기고 돌아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이 세상 계실 때 주님이 당하신 시험이 아니라 거듭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인간과 함께 싸우는 시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인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 가면 내면 깊은 곳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어휘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요, 또 같은 사건이라도 앞부분과 뒷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광야 시험이 영화(榮化, *glorification*)하시는 과정에서 주님 자신이 당하신 시험이라면, 여기 광야에서 돌아오신 것은 거듭나는 인간과 함께 시험에서 이기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돌아오실 때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거듭나는 사람이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겉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속뜻으로 갈릴리는 이방인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거듭나는 사람 안의 겉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잠깐, 겉 사람, 속 사람 등의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아직은

육(肉)을 입고 살아 있는 상태이기에 ^^,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간단하게는 inmost, internal(속 사람), external(겉 사람), body 등 이 네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며, 좀 더 명확성을 위해 영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 앞의 세 개까지가 영, 나머진 body가 육, 우선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들 네 가지는 사람 생전엔 모호하지만 일단 사후, 영이 되면 그때는 아주 명료해지는 그런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고요, 그때 제일 먼저 body가 분리됩니다. 즉 body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영계에서 깨어나게 되지요. 사후 첫 번째 상태는 준비상태로, 그동안 body와 internal 사이에서 수고한 external이 정리, 휴면상태에 들어갈 준비를, 그리고 internal이 전면에 드러날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계의 영원한 삶은 이 internal로 살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상태 때는 아직은 생전 식구들이나 친구, 지인들이 서로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아주 반가워들 하지요. 사후 두 번째 상태가 되면, 이제 ex

‘안식일의 가르침’

ternal은 휴면상태로 들어가고, internal 상태가 되어 예를 들면, 살아생전 한 식구였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못 알아보게 됩니다. 본인은 물론, 식구들 역시 서로의 영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생전 식구들이 본 서로의 모습은 external이지 internal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지상 혈연은 지상으로 끝, 영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inmost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네, 우선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처음 거듭날 때는 먼저 속 사람 안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혁(reform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속 사람 안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겉 사람의 상태는 아직 교회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를테면 속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겉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배척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겉 사람은 마치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겉 사람이 시험에서 한 번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수없

이 넘어지고 일어난 끝에 가까스로 주님의 손을 잡고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겉 사람 안으로 오셔서 교회의 작은 초석을 하나 세우십니다. 그런 과정이 수없이 되풀이되어야 궁극적으로 겉 사람 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돌아 오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지 않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15절입니다.

**15**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회당은 속뜻으로 교리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회의 회당은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었고요, 또 교리의 해석이 다를 때 그것을 조정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은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겉 사람 안에 오셔서 새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는데, 못사람은 겉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애정들과 생각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칭송했다”는 것은 애정들과 생각들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리를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각이 흘러들어올 때, ‘이것이 참 진리로구나!’ 하고 공감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이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못사람들이 칭송하는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sup>16</sup>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역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겈 사람 안의 어느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는 말은 주님은 겈 사람 안에서 성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구유에 갓 태어나신 주님이 계시고요, 어떤 분에게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진

리를 토론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청년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각사람 안에 계신 주님은 그렇게 성장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성장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속 사람이 아니라 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겈 사람이 악을 끊고 선을 행할 때마다, 그것에 비례해 주님은 조금씩 자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나사렛을 주님이 자라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본래 완전히 거듭나서 더이상 시험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의 시험이 끝나고 다음번 시험이 올 때까지의 잠시 동안의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리는 어떤 것입니까? 삶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진리를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혜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눅4:14-22

## ‘안식일의 가르침’

을 사랑하라는 것이 원론이라면, 원론에서 파생되는 수없이 많은 각론이 있습니다. 그 각론들이 주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sup>17</sup>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sup>18</sup>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sup>19</sup>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선 자체이신 여호와로부터 잉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성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에도 고대

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왕들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 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님을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은 당신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와 포로 된 자는 누구며, 눈먼 자는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모두 선과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악과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므로 구원의 처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난한 자”는 자신에게 진리와 선의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진리와 선에 대한 지식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부자의 상에

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자 했던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에 비해 “눈먼 자”는 진리와 선을 모르기는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이지만, 주님을 믿지도 않고 진리를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르쳐 주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포로 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과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 헤어날 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진리를 전혀 몰라 그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 악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포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놀린 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놀린 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알고 신봉하면서, 진리를 말하면 배척하고 심지어 모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놀린 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님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 있어야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up>20</sup>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0절에서 주님은 책을 덮어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은 자”는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minister’, 즉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걸 사람 안으로 오실 때, 반드시 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 속으로 오시는 것을 원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 적극적으로 시중을

‘안식일의 가르침’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의사와 관계 없이 말씀을 읽어주시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섬기는 자들이 성경을 주님께 갖다 드려야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내적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님의 모든 선한 역사는, 주님과 우리 안에 있는 섬기는 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성경을 갖다 드리자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다 읽고 덮으셨을 때, 다시 섬기는 자에게 맡기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앉다, 서다, 걷는다는 말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앉는 것**”은 가장 내적인 상태, 그러니까 의지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서는 것**”은 의지로부터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걷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걸 사람의 의지 가운데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걸 사람의 의지 가운데 계실 때, 걸 사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sup>21</sup>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앉으셨다**”는 말과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말은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는 “**귀에서 이루어졌다**”입니다. 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의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험에서 이기고 주님께서 걸 사람 안으로 오실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을 이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으로 22절입니다.

<sup>22</sup>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증언했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때 요셉은 신성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아닙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고, 이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세상 관점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가 야곱의 아들인지, 마리아의 남편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요셉이라는 단어와 단어가 갖는 의미에만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과 야곱의 아들 요셉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한 것은,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목수 요셉의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 의미로 보면 신성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신성한 인간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아들은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와 선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속 사람이 아니라 겉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 돌아오신 주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주님께서 겉 사람 안으로 오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겉 사람의 의지 안에 말씀의 진리를 심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의지 가운데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이

눅4:14-22

‘안식일의 가르침’

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모든 진리가 주님의 신적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최초의 신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마지막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올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세상의 자연적인 것 안에 담길 때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 자연적인 것이 바로 주님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인성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능력이 모든 가난한 자와 눈먼 자, 포로 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눈먼 자, 포로 된 자, 억눌린 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느만큼은 가난한 자이고 눈먼 자이며, 그리고 포로 된 자이며 억눌린 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치유하시는 이 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sup>35</sup>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sup>3</sup>  
<sup>6</sup>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3:35-36)

아멘

원본

2017-07-02(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24(D7)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